

산부인과 전문의 의료사고 배상액 국가가 최대 15억 원 보장한다

-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배상보험료 국가지원 본격 개시 -
- 2025년 11월 26일부터 12월 12일까지 보험 가입자 모집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본격 시작하기로 하고, 11월 26일(수)부터 12월 12일(금)까지 지원 대상 의료진의 소속 의료기관이 배상보험의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은 국가의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배상보험료 지원을 통해 의료진의 배상 부담을 완화하고 환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주요 사업이다.

* [10.27일 보도자료]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배상보험료 국가지원'

정부는 보험사 공모(10.27~11.11)와 보험사업자 선정위원회 평가(11.18)를 거쳐 (주)현대해상화재보험을 '25년 보험사업자로 선정하고, 기존 공모안과 비교하여 보험 가입자의 부담, 보장한도 등 보험계약 내용을 보험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확정하였다.

보험료 지원 대상자는 전문의의 경우 '병·의원에 근무하는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소아외과·소아흉부외과·소아심장과·소아신경외과 전문의'이다. 본 사업의 배상보험은 의료사고 배상액 중 2억 원까지는 의료기관의 부담으로 하고, 2억 원을 초과한 15억 원 배상액 부분에 대해 보장*한다. 해당 보험료는 전문의 1인 기준 연 170만 원이고 이 중 국가가 150만 원을 지원하므로, 의료기관은 연 20만 원으로 고 위험 필수의료 분야의 고액 배상 부담을 덜 수 있다.

* (예시) 지원 대상 전문의 관련 의료사고 발생으로 17억 원의 손해배상이 발생하는 경우, 2억 원은 의료기관 부담, 초과분 15억 원은 보험사에서 부담

전공의의 경우 ‘수련병원에 근무하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소속 레지던트’가 지원 대상이다. 본 사업의 배상보험은 의료사고 배상액 중 3천만 원까지는 수련병원의 부담으로 하고, 3천만 원을 초과한 3억 원 배상액 부분에 대해 보장*한다. 해당 보험료는 전공의 1인 기준 연 42만 원이며 이 중 국가가 25만 원을 지원해 병원은 연 17만 원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예시) 지원 대상 전공의 관련 의료사고 발생으로 3억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이 발생하는 경우, 3천만 원은 의료기관 부담, 초과분 3억 원은 보험사에서 부담

또한 위 8개 과목 레지던트가 소속된 수련병원은 기존에 가입한 배상보험*이 있을 경우, 보험료 지원과 같은 금액인 전공의 1인 기준 25만 원의 환급을 선택할 수도 있다. 11월 10일(월)부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환급 신청을 받고 있으며 12월 5일(금)까지 신청할 수 있다.

* 보장한도가 3억 원 이상이고 보험효력이 '24.12월부터 '25.11월 중 개시된 배상보험

본 보험에 가입하려는 의료기관은 보험사에 가입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세부사항은 11월 26일(수)부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주)현대해상화재보험의 필수의료 배상보험 전용 누리집*(홈페이지), 콜센터 상담전화(1551-721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 : www.k-medi.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현대해상 필수의료 배상보험 전용 홈페이지 : www.himm.co.kr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은 전문의 1인당 연 20만 원의 적은 비용으로 15억 원의 고액 손해배상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많은 의료기관이 배상보험에 가입하기를 기대한다” 라고 하면서 “앞으로 충분하고 신속한 피해 회복을 전제로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2025년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 개요

담당부서	보건의료정책관	책임자	과 장 신현두 (044-202-2470)
	의료기관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수영 (044-202-2474)



○ (사업목적) 필수의료 의료진에 대한 의료사고 배상보험료 지원을 통해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및 안전한 진료환경 보장

○ (지원예산) '25년 5,025백만 원 (신규사업)

○ (지원대상) 필수의료 전문의 및 전공의

- 전문의 : 분만 수행 산부인과(의원급, 병원급), 소아 외과계열(병원급)*

* 소아외과, 소아흉부외과, 소아심장과, 소아신경외과 세부 전문의

- 전공의 : 수련병원에 근무하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소속 레지던트

○ (지원내용) 배상보험료의 일부 지원

- 전문의 : 고액 배상 보험(2억 원 초과 17억 원까지 보장, 총 15억 원)의 보험료 중 국가가 150만 원 지원
- 전공의 : 전공의 특화 보험(3천만 원 초과 3억 3천만 원까지 보장, 총 3억 원)의 보험료 중 국가가 25만 원 지원

※ 단, 수련병원이 기존 배상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동일한 금액인 전공의 1인 25만원의 보험료 환급 지원을 선택 가능

* 보장한도가 3억 원 이상이고 보험효력이 '24.12월부터 '25.11월 중 개시된 배상보험